

초점 LA 다저스 류현진, 오늘 애리조나 설욕전

체이스필드 악몽 떨쳐낼 것인가?

4승 재도전... '천적' 폴룩
골드슈미트 '경계령'

지난 4월 빅리그 데뷔 후 가장 뜨거운 한 달을 보낸 류현진(31·LA 다저스)의 5월 첫 상대는 올 시즌 첫 등판에서 아픔을 안겼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다.

류현진은 3일 오전 10시40분(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 필드에서 열리는 2018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애리조나는 류현진이 올해 정규시즌 첫 등판에서 만난 상대다. 당시 장소도 체이스 필드였다.

정확히 한 달 전인 4월3일 애리조나전에서 류현진은 3%이닝 5피안타 2탈삼진 5볼넷 3실점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5선발로 시작한 류현진의 입지도 불안해졌다.

하지만 류현진은 이후 4경기에서 패투를 선보였다. 4경기에서 24%이닝을 소화하며 패배없이 3승, 평균자책점 1.46의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피안타율이 0.119에 불과했고, 삼진을 무려 32개나 속아내며 탈삼진 본능을 과시했다.

시즌 개막 후 한 달 동안 3승 무패 평균자책점 2.22를 기록한 류현진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다. 5명의 다저스 선발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두고 평균자책점도 가장 낮은 류현진을 이제 2선발급으로 바라본다.

지난달 28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서 4연승, 시즌 4승에 도전한 류현진은 5%이닝 동안 7개의 삼진을 속아내며 4피안타(2홀런) 2실점으로 호투했다. 역전 적시 2루타까지 때려낸 류현진은 승리를 눈앞에 뒀으나 볼펜이 무너지면서 승리를 날렸다.

류현진이 애리조나 상대 설욕전과 시즌 4승 재도전에 성공하려면 체이스 필드에서의 악몽을 떨쳐야 한다.



류현진은 체이스 필드에서 유독 약했다. 체이스 필드에서 통산 6경기에 선발 등판해 33%이닝을 던졌는데 2승 2패에 그쳤고, 평균자책점이 5.08에 달한다. 홈런도 5개나 허용했다. 악몽은 시즌 첫 등판에서도 되풀이됐다.

애리조나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애리조나는 내셔널리그 15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20승 고지를 밟았다. 1일까지 20승 8패를 거둬 내셔널리그 승률 1위를 질주 중이다.

팀 타율은 0.235로 높지 않지만, 팀 타점 128개를 기록해 내셔널리그 3위를 달릴 정도로 응집력을 자랑한다. 장타력도 무시무시하다. 팀 홈런에서 34개로 1위, 팀 장타율은 0.422로 내셔널리그 2위다.

류현진이 넘어야 할 것은 체이스 필드의 악몽뿐 아니다. 천적도 물러쳐야 한다. A J 폴룩과 폴 골드슈미트가 경계대상이다.

폴룩은 류현진을 상대로 통산 타율 0.346(26타수 9안타) 4타점을 기록했다. 류현진을 상대로 홈런을 때려내지는 못했으나 안타 9개 가운데 2루타가 2개, 3루타가 1개였다.

올 시즌 컨디션도 좋다. 폴룩은 타율 0.291(103타수 30안타) 9홈런 24타점을 기록했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쏘아 올렸다. 안타 30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장타다. 2루타 8개, 3루타 2개를 쳤다.

폴룩은 최근 7경기에서는 타율 0.345(29타수 10안타) 4홈런 8타점으로 상승세도 자랑했다.

골드슈미트는 류현진과 통산 맞대결에서 타율 0.455(22타수 10안타) 2홈런 7타점으로 강한 면모를 자랑했다. 2루타도 3개나 쳤다.

골드슈미트도 올 시즌 타율 0.273(99타수 27안타) 4홈런 11타점으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7경기에서는 타율 0.259로 주춤하고 있다.

/뉴시스



카림 벤제마

'카림 벤제마 2골' 레알 마드리드 유럽 챔스 결승행

바이에른 뮌헨전 2-2 무승부
27일 리버풀-AS로마 승자와 경기

스페인 명문 클럽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때리고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 3연패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레알 마드리드는 2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의 대회 준결승 2차전에서 카림 벤제마의 2골을 바탕으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로써 원정 1차전에서 2-1로 승리했던 레알 마드리드는 1승1무로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3연패이자 통산 13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2015~2016시즌과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오른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통산 최다 우승팀이다. 12번 정상에 올랐다. 2위는 AC밀란(이탈리아·7회)이다.

결승전은 이날 27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다. 레알 마드리드는 리버풀(잉글랜드)-AS로마(이탈리아)의 준결승 승자와 우승을 다툰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시즌 대회 8강에 이어 다시 한 번 레알 마드리드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15골로 득점부문 1위에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골맛을 보지 못했다. 결승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회 최다골(17골)에 도전한다.

한편, 리버풀과 AS로마의 준결승 2차전은 3일 열린다. 1차전에서는 리버풀이 5-2로 이겼다. /뉴시스

6월 평양오픈 탁구, 남북 평화 가교 가능성

한국 출전시 ITTF 北 설득

의 남북 관계에서 사실상 불가능했다. 평양오픈이 슈퍼시리즈로 열리는 한국의 코리아오픈보다 두 단계나 낮은 랭킹지 투어라는 점도 왕래가 없던 요인 중 하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세기의 만남'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을 맞잡은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2018

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탁구 오픈대회는 개인전 위주로 치러진다. 선수들이 가슴에 국기를 달고 뛰지만 국가 대항전은 아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이후 한국 선수들이 처음으로 평양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점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북한의 초청장 발급과 통일부 승인 등

세부 절차가 필요하지만 남북 정상이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 작금의 분위기가 맘만 먹는다면 일은 일사천리로 풀릴 수 있다.

대한탁구협회는 조만간 ITTF측에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세계선수권이 진행되는 스웨덴 할름스타드에서 논의될 공산이 크다. 한국이 ITTF측에 평양 오픈 출전 의사를 피력하면, ITTF가 북한을 설득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개로 북한과 직접 대화에도 나선다. 탁구는 지바 대회를 기점으로 남북 체육인들 간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뉴시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매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